



군종주보

2023년 10월 22일(제1163호) 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 위한 미사(전교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딱 한 마디로 초대하기”

혹시 소록도라는 섬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는 반년 정도 소록도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 아름다운 바다, 시간이 멈춘 듯한 바닷가 마을, 고요한 노을, 아름다운 별들! 사슴들! 또 좋은 마음으로 온 봉사자들!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한센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소록도가 좋은 걸 다 설명 못 하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딱 한 마디로 합니다. “소록도 참 좋아, 소록도 가볼래?”

아무튼 그렇게 소록도에 저의 초대를 받아서 간 이들의 감동은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추억과 마음을 쌓아서 오더라고요. 똥판지같이 섬 얘기로 시작했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알아가면서 이와 비슷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와 힘이 될 때!
주님의 사랑이 나의 손길이 되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했던 기쁨!
성당의 거룩함과 내적인 풍요와 평안을 고요하게 나의 내면을 채울 때!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이런 내가 받고 있음을 느낄 때!
고해성사의 은총, 기도의 힘, 성경 속 말씀! 하느님을 향한 벅찬 마음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이 모든 예수님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기쁨을 결코 다 설명 못 할 겁니다. 이 좋은 신앙을 다 설명 못 하기에, 제가 뭐라고 할까요. 딱 한 마디로 합니다. “성당 참 좋아, 성당 나올래?”

전교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받아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더 많은 이가 복음을 알아 더 풍요롭고 승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전교 주일, 용기를 내서 말씀을 건네세요!

“성당 나올래?”



윤기준(미키엘) 신부
백두신(육군 제21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2,1-5

회답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 2 독 시

로마 10,9-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태 28,16-20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여덟 번째 시집

그때 포졸 하나가 마리아에게 접근하여 점잖지 못하게 치근거리며 “다른 이들은 다 떠났는데, 너는 왜 꾸물거리고 서 있느냐? 가기 싫은 것이 아니냐?” 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관원이 여자에게 짓궂게 구는 꼴을 못마땅하게 여겨 엄중한 소리로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당신은 아주 망측한 사람이요. 내가 가거나 말거나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이 내 자유인데,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갔는데 내가 왜 안 간단 말입니까? 당신은 상관 말고 당신 갈 길이나 가십시오” 하고 그의 야비한 행동을 나무랐습니다. 포졸이 떠나가자 마리아는 아기(스테파노)를 팔에 안고 일행을 뒤쫓아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마리아는 남편과 큰 자식들과 격리되어 여인들 감방에 갇난 아들과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른 이들과 더불어 범정에 섰습니다. 팔, 다리는 고문으로 으스러지고 곤봉에 찢겼으나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문 외에도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은 갇난아기에 대한 모성애였습니다. 갇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은 안 나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엄마의 눈앞에서 굶어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줄곧 곳곳이 버티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극도의 고문을 받은 끝에 마침내 죽고, 또 어린것이 더러운 감방에 축 늘어져 누워 있는 것을 보았 때, 자식에 대한 그릇된 자비심에 의하여 마리아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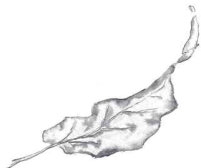
곤장에도 칼에도 용맹하였으나 자식에 대한 애정에는 약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살덩이와 핏덩어리들이 더럽게 흩어져 있는 감옥에서 마리아는 마음과는 달리 거짓말로 배교한다고 한마디 함으로써 현세적, 영신적 구원을 함께 도모하려는 그릇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감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임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자연스럽게



시간이 차면
변하는 것들이 있다.

역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 변화에 발맞추어
함께 변해야지 자연스럽다.

그럴 땐 잠시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
자연스러울 때까지.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한국전 당시 유엔군사령부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열심히 싸웠고, 당연히 각국 부대마다 군중신부님 혹은 목사님들이 계셨다. 이분들은 전방에서 죽음을 앞둔 군인들에게 병자성사를 주시고 미사를 집전하셨는데, 오늘은 호주의 신부님들과 군목들을 소개한다.

김은혜(벨리사벳)



AUSTRALIAN WAR MEMORIAL P01913.457

▶ 호주 육군 조 필립스 신부님
전방에서 병사들을 나르는 스트레처 위에 작은 제단을 세우고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AUSTRALIAN WAR MEMORIAL 146414

▲ 호주군들이 작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



AUSTRALIAN WAR MEMORIAL P03193.008

▲ 호주 공군 에스몬드 목사
호주 진시지 장례식을 집전하는 에스몬드 목사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9주일: 상호헌 이승원 신부

◆ 교구장 동정

- 용성대(제20전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10월 22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10월 24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2023년 정기세미나 및 정기이사회

때·곳: 10월 27일(금)~28일(토), 경주 더케이호텔

“**신교의 열매, 세례성사!**”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 28,19)